

서울시내 대학생의 외식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김희선 · 정진은*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안산1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01년 4월 6일 접수)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Heesun Kim and Chin Eun Chung*

Dept. of Food & Nutrition, College of Home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Food & Nutrition, Ansan College**

(Received April 6, 2001)

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ating out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is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questionnaires for 710 students(369 male, 341 female) from 11 universities in Seoul. It was revealed that 39.4% of the subjects spent 60,000~100,000 won for monthly eating out cost and 57.8% of them ate out more than once a day. Most of them expended less than 3,500 won for lunch, while 36.5% of them spent 4,000~5,000 won for dinner. Dinner was regarded more important than lunch. Korean foods were the most preferred menu for eating out with friends and fast foods were the second. But Boonsik(snack bar foods), Chinese foods and Japanese foods were rarely selected. Frequency of selecting fast foods was 8 times greater than that of Boonsik. This indicates that the preference of western flavor and the pursuit of convenience is getting more obvious. While dating, western foods were preferred, followed by Korean foods, fast foods. The 80 kinds of foods were reported as favored eating out foods. Although 50 among 80 were Korean foods, the rest of them were Koreanized foreign foods most of those were western style. This may suggest that when the students become adults, they will be much fond of western dish for their dining out. This tendency of preferring western flavor were much apparent in foods for dinner compared with lunch. In both sexes, the standard of food choice was in the order of taste, price, mood, hygiene, service and brand name. But male students were more conscious of price and service while female students were more concerned about taste and hygiene. Most unsatisfying feature in restaurant was unstable atmosphere for both sexes. Taste was the most important sensory factor in selecting the foods, followed by appearance, smell and texture. Major source of restaurant information was recommendation by friends or relatives. But the use of internet or magazine was negligible. Female students had more positive attitude, compared with male students, in using restaurant information and pursuing eating out for gourmet. The dining out menu of which price ranges about 3,000~5,000 won could be preferable foods for most people. Therefore, instead of blaming them for eating too much fast foods, new menus which fit the food preference and affordability of the students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eating out behavior, university students, preferred foods

I. 서론

1980년대 이후 우리 국민의 식생활은 급속한 산업화와 소득의 향상,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레저생활의 확대 등 외식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전통적인 내식 중심의 식생활에서 편의 식품의 이용 증가와 외식지향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¹⁾. 외식의 목적도 다양화하면서 외식시장은 양적인 급성장 추세에서 질을 추구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²⁾. 1998년 말 현재 단체급식업소를 제외한 전국 외식업체의 수는 412,166 개소를 헤아리며³⁾, 우리 나라 국민은 식료품비 중 평균 34.2%를 외식비에 지출하고 있다⁴⁾.

특히 대학생은 이전까지 학교급식이나 가정식의 수동적인 식사 형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외식의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연령층이다⁵⁾. 대학생들의 매식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98년을 기준으로 대학생층인 20대 초반의 소비지출대비 외식비는 10.8%로서 외식업체의 주요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다⁶⁾. 또한 대학생의 식습관은 과거의 식습관을 반영할 뿐 아니라, 다음 단계인 성인기의 식습관으로 이어진다는⁷⁾ 점에서 이들의 현재 외식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외식시장의 성격과 변화 추이를 예측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식관련 조사연구는 외식실태 조사⁵⁾¹⁸⁻¹⁷⁾, 식습관과 기호도 조사⁶⁾¹⁸⁻²⁵⁾, 패스트푸드 이용실태 조사²⁶⁻³⁰⁾ 등이 있었는데, 이는 주로 대학생들의 부적절한 식습관과 외식실태를 조사하여 영양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있었다. 이들 연구는 대상자가 한 학교에 국한되거나¹⁾⁷⁻⁹⁾¹²⁻¹⁵⁾ 대상자의 수가 200명 내외로 적거나^{11)12,21,30)}, 특정 식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⁵⁾²⁶⁻³⁰⁾여서 한 지역 전체 대학생의 외식행동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외식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요한 고객 층 중의 하나인 대학생들의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는 외식업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향후 외식시장의 변화추세를 진단함과 아울러 외식업계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선행

연구들^{8,5,6,17)}을 참조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여 2000년 9월 4일 60명의 상명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내 대학 11개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당 70명 내외의 학생을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무작위 추출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9월 18일부터 23일까지였다. 배포한 설문지 770부 가운데 회수된 설문지는 732부였으며, 이 중 불완전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710부(남 369, 여 341)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2. 조사 내용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사항과 외식행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사항

성, 연령, 학년, 월평균 용돈, 키, 체중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2) 외식비와 외식빈도

월평균 외식비, 한끼 당 평균 외식비, 점심 저녁의 외식비 비중을 조사하였다.

3) 외식시 선호하는 음식

점심과 저녁으로 즐겨 사먹는 음식을 순서대로 각각 4가지씩 적도록 하여, 음식별로 응답 빈도수를 조사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의 종류와 그 특징을 알아보고, 점심과 저녁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4) 식당 선택의 기준과 개선점

친구와 만나거나 데이트하는 장소, 식당 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 식당의 개선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5) 음식 선택시 중요시하는 감각

시각(모양새), 후각(냄새), 미각(맛), 촉각(입안에서의 감촉)의 4가지 감각을 중요시하는 순서대로 열거하게 하여, 우선순위로 각각 4점, 3점, 2점, 1점의 점수를 주어 각 감각에 대한 평균점을 구하였다.

6) 식당정보의 활용과 외식에 대한 적극성

식당 정보의 이용도와 출처, 미식(美食)을 위한 외식의 빈도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식의 범위를 가족, 친지와외 외식을 제외한 친구(선후배 혹은 데이트 상대)와의 외식으

로 한정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여러 변수들과 남녀 성별간의 차이는 χ^2 검증을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성, 연령, 학년, 월평균 용돈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남녀 모두 20~24세가 전체의 5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세 미만(34.4%), 25~29세(7.9%)의 순이었다. 학년 분포는 남녀 합하여 2학년(43.8%), 3학년(20.0%), 1학년(19.3%), 4학년(16.9%)의 순이었다. 대상자들의 월평균 용돈은 남녀 모두 21~3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37.5%), 다음으로는 11~20만원(35.1%), 31~40만원(11.3%)의 순이었다. 31만원 이상인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All	Male	Female
	N(%)	N(%)	N(%)
Age (years)			
< 20	244(34.4)	114(16.1)	130(18.3)
20 ~ 24	409(57.6)	210(29.6)	199(28.0)
25 ~ 29	56(7.9)	44(6.2)	12(1.7)
30	1(0.1)	1(0.1)	0(0.0)
Total	710(100.0)	369(52.0)	341(48.0)
School year			
1st	136(19.3)	60(8.5)	76(10.8)
2nd	308(43.8)	181(25.7)	127(18.0)
3rd	141(20.0)	71(10.1)	70(9.9)
4th	119(16.9)	57(8.1)	62(8.8)
Total	704(100.0)	369(52.4)	335(47.6)
Monthly spent money (10,000 won)			
≤10	60(8.5)	32(4.5)	28(3.9)
11 ~ 20	249(35.1)	128(18.0)	121(17.0)
21 ~ 30	266(37.5)	134(18.9)	132(18.6)
31 ~ 40	80(11.3)	43(6.1)	37(5.2)
41	55(7.8)	32(4.5)	23(3.2)
Total	710(100.0)	369(52.0)	341(48.0)

다소 많았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용돈은 최근에 조사된 신²²⁾의 연구와 비슷했으며, 타지방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2,17,19,16)}에서보다는 다소 많았다.

남학생의 평균신장과 체중은 각각 174.8±5.0cm, 67.7±29.2kg, 여학생의 경우는 162.8±4.2cm, 50.7±4.6kg 이었다. 남학생의 경우는 2,000년 한국인 영양권장량³¹⁾에 나타난 20~29세 남자의 평균신장(174cm) 및 평균체중(67kg)과 비슷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신장은 평균신장(161cm)과 비슷했으나 체중은 평균체중(54kg)보다 조금 낮았다.

2. 외식비와 외식빈도

대상자들의 월평균 외식비와 외식빈도는 <Table 2>와 같았다. 외식비는 6~1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39.4%), 다음으로는 11~15만원(22.3%)으로 제주도¹⁷⁾, 부산¹⁶⁾, 여주¹⁵⁾ 등 타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다 다소 많았다. 남학생은 5만원 이하인 경우가 여학생보다 많은 반면, 16만원 이상인 경우도 여학생보다 많았으나 남녀간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전체 대학생들의 월평균 용돈은 26.8±14.8만원으로 이중 약 44.5%인 11.9±7.3만원을 외식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외식빈도는 남녀 모두 주당 9회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43.4%), 주 7회이상 외식하는 학생은 57.8%로 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매일 한끼 이상 외식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식빈도는 93년 김의 보고²⁷⁾(남 45.1%, 여 44.4%), 99년 허의 보고⁵⁾(남 28.4%, 여 29.0%)에서보다 상당히 높았다. 여학생의 외식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

<Table 2> Cost and frequency of monthly eating out

Variables	All	Male	Female	χ^2
	N(%)	N(%)	N(%)	
Eating out cost				6.309
≤5	145(20.5)	81(11.4)	64(9.0)	
6 ~ 10	279(39.4)	142(20.0)	137(19.3)	
11 ~ 15	158(22.3)	72(10.2)	86(12.1)	
16 ~ 20	85(12.0)	46(6.5)	39(5.5)	
≥21	42(5.9)	27(3.8)	15(2.1)	
Total	709(100.0)	368(51.9)	341(48.1)	
Frequency (per week)				5.485
3 ~ 4 times	151(21.3)	87(12.3)	64(9.0)	
5 ~ 6	148(20.9)	72(10.2)	76(10.7)	
7 ~ 8	102(14.4)	45(6.4)	57(8.1)	
≥9	307(43.4)	165(23.3)	142(20.1)	
Total	708(100.0)	369(52.1)	339(47.9)	

던 이전 결과^{5,17)}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간의 외식빈도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서울시내 대학생들의 외식빈도는 최근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끼 점심 식사비로 57.5%의 학생들이 2,000~3,500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2,000원 미만인 경우도 29.7%나 되었다. 반면 3600원 이상인 경우는 12.8% 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3,500원 이하를 지출하고 있었다. 반면 저녁 식사비는 4,000~5,000원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00~3,000원대(30.7%)가 많았으며, 8,000원 이상을 쓰는 경우도 20.3%나 되어 점심보다는 저녁에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1회 외식비가 2,000원 내외라고 한 98년 송의 보고¹⁴⁾에

서 보다 훨씬 많았다.

점심 식사비에는 남녀간에 유의적 차가 있어서 남학생들은 2,000원 이하나 4,500원 이상을 쓰는 경우가 여학생보다 많았고, 여학생들은 2,000~4,500원을 쓰는 경우가 남학생보다 많았다. 저녁도 같은 경향이어서 남학생들이 양 극단의 값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원의 돈이 있을 때 점심값과 저녁값으로 어떻게 배분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48.5%가 3 : 7로, 18.7%가 4 : 6으로, 16.2%가 2 : 8로 응답하여 대다수(83.4%)의 학생들이 저녁의 비중을 훨씬 크게 두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점심보다는 저녁에 비중을 두고 있음은 다른 연구들^{6,17,16)}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저녁의 비중을 크게 두고 있어서(P<.001) 김¹⁹⁾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Table 3> Expenses for lunch and dinner per meal

Expenses (won)	All	Male	Female	χ^2
	N(%)	N(%)	N(%)	
Lunch				21.734***
< 2,000	211(29.7)	133(18.7)	78(11.0)	
2,000~3,500	408(57.5)	195(27.5)	213(30.0)	
3,600~4,500	68(9.6)	26(3.7)	42(5.9)	
> 4,500	23(3.2)	15(2.1)	8(1.1)	
Total	710(100.0)	369(52.0)	341(48.0)	
Dinner				12.527*
2,000~3,000s	218(30.7)	124(17.5)	94(13.2)	
4,000~5,000s	258(36.3)	131(18.5)	127(17.9)	
6,000~7,000s	90(12.7)	33(4.7)	57(8.0)	
> 8,000	144(20.3)	81(11.4)	63(8.9)	
Total	710(100.0)	369(52.0)	341(48.0)	

*P<0.05 ***P<0.001

3. 즐겨 사먹는 음식의 종류

<Table 5>에서 보듯이 친구와 즐겨 사먹는 음식은 남녀 모두에서 한식(53.4%)에 이어 패스트푸드(22.1%)

<Table 4> Preferable cost ratio of lunch to dinner with 10,000 won

Lunch : Dinner (won)	All	Male	Female	χ^2
	N(%)	N(%)	N(%)	
2,000 : 8,000	115 (16.2)	72(10.1)	43(6.1)	20.553***
3,000 : 7,000	344 (48.5)	160(22.5)	184(25.9)	
4,000 : 6,000	133 (18.7)	60(8.5)	73(10.3)	
5,000 : 5,000	73 (10.3)	46(6.5)	27(3.8)	
Others	45 (6.3)	31(4.4)	14(2.0)	
Total	710(100.0)	369(52.0)	341(48.0)	

***P<0.001

<Table 5> Favorite food while meeting with friends or dating

Variables	Meeting with friends			χ^2	Dating			χ^2
	All	Male	Female		All	Male	Female	
	N(%)	N(%)	N(%)		N(%)	N(%)	N(%)	
Boonsik	19(2.7)	5(0.7)	14(2.0)	35.436***	14(2.0)	9(1.3)	5(0.7)	6.940
Korean	379(53.4)	216(30.4)	163(23.0)		200(28.3)	98(13.8)	102(14.4)	
Fast foods	157(22.1)	65(9.2)	92(13.0)		194(27.4)	103(14.6)	91(12.9)	
Western	69(9.7)	24(3.4)	45(6.3)		214(30.2)	115(16.2)	99(14.0)	
Chinese	25(3.5)	20(2.8)	5(0.7)		4(0.6)	3(0.4)	1(0.1)	
Japanease	13(1.8)	8(1.1)	5(0.7)		35(4.9)	13(1.8)	22(3.1)	
Others	48(6.8)	31(4.4)	17(2.4)		47(6.6)	28(4.0)	19(2.7)	
Total	710(100.0)	369(52.0)	341(48.0)		708(100.0)	369(52.1)	339(47.9)	

***P<0.001

가 가장 많았다. 1990년대 중반이전 서울시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8,9})나 최근 전북¹⁹), 부산¹⁶), 제주시내¹⁷)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분식의 이용도가 패스트푸드나 양식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의 이용도가 분식의 8배 가량 높게 나타나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외식 선호도가 타지역에 비해 분식에서 패스트푸드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패스트푸드와 양식의 이용도가 높았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한식을 더 선호하였다($P < .001$). 음식 종류에 대한 이러한 선호 경향은 다른 결과들^{15,17,25,27})과 일치했다. 남녀 모두에서 중식과 일식의 이용도는 낮았으며, 여학생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이는 아마도 이들의 기호에 맞는 5,000원 미만의 중식, 일식 메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데이트 시에는 친구와 만날 때에 비해 양식의 선호도(30.2%)가 크게 높았으며, 한식(28.3%), 패스트푸드(27.4%)는 여전히 선호되었고 남녀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선행 연구들^{8,11})에서도 데이트시에는 양식집의 이용빈도가 높았다. 데이트 시에도 분식, 중식, 일식의 선호도는 매우 낮았다.

점심과 저녁으로 즐겨 사먹는 음식을 순서대로 각각 4가지씩 쓰도록 한 결과 <Table 6>에서와 같이 총 80가지의 음식이 조사되었는데, 대학생들이 매식하는

음식 종류가 쌀 전분성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음료수와 스낵에만 국한되었다는 이전 보고²⁸)와는 달리 비교적 다양하였다. 그러나 점심과 저녁에 중복되어 선택된 메뉴가 66가지나 되서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위한 폭넓은 메뉴 개발이 절실하다고 본다.

80종의 음식 중에는 비빔밥, 볶음밥같은 한그릇 밥 음식과, 김치찌개 같이 밥에 국물을 곁들인 음식이 31종(38.8%)으로 가장 많았다. 즐겨 먹는 육류와 생선음식은 17가지였는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닭고기, 돼지고기, 내장을 이용한 음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짜장면, 라면 등의 면류 13가지, 패스트푸드 3가지, 빵과 스낵류 11가지도 즐겨 먹는 음식에 포함되었다.

80가지 음식 중 한식은 50가지였으며 패스트푸드와 일부 스낵류를 포함한 양식이 13종, 일식 6종, 중식 3종, 스낵류와 기타 8종이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외식 메뉴는 한식이 주종을 이루고는 있으나 상당부분은 한국화된 외래음식이 차지하고 있고, 양식의 종류가 일식이나 중식보다 많아 앞으로 청장년층에서 서양음식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80가지의 음식 가운데 점심과 저녁으로 선택빈도가 가장 높은 15가지의 음식을 선택 우선 순서에 따라 각각 <Table 7>과 <Table 8>에 나타내었다.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점심으로 가장 즐겨 선택하는

<Table 6> Preferable foods for lunch and dinner

(): item numbers

Rice (14)	Rice + Soup (17)	Meat & Fish (17)	Noodle (13)	Bread & Snack (11)	Fast Food (3)	Others (5)
Baekban	Altang#	Bosam#	Jambong	Bread	Friedchicken	Alcohol
Bibimbab	Budaechijigae	Chulpangui#	Jolmyun	Cookie	Hamberger	Dubokimchi#
Bokkeumbab	Doenjajigae	Chickencutlet	Guksoo	Doughnuts	Pizza	Modeumjun
Bulgogidupbab	Galbitang	Dakbokkeum	Jajangmyun	Tuigim		Pajun
Curry rice*	Gukbap	Dakdoritang	Kalguksoo	Ice cream		Salad
Dolsotbibimbab	Haejangguk	Dakgangjung#	Mandugook	Milk		
Dupbab	Haemultang#	Dakgalbigui	Naengmyun	Amuk		
Gimbab	Jungol#	Dakgogi	Rabokki	Sandwich		
Kimchibokkeumbap	Kimchijigae	Dongas	Ramyun	Soondae		
Jungshik	Modeumjigae #	Galbigui	Spaghetti	Dukbokkgi		
Omurice	Samgaetang	Gobchangbokkeum#	Soojebi	Vegetable croquette*		
Ojngabokkeumbap	Soondaegukbab	Jumulleok*	Dukgook			
Sushi	Sundubujigae	Jokbal#	Udong			
Hoedupbab	Gamjatang	Samgyubsalgui				
	Sullungtang	Sashimi#				
	Chamchijigae	Steak				
	Yookgaejang	Tangsuyuk				

* for lunch only # for dinner only

<Table 7> Preferable foods for lunch

(): item numbers

Items		First	Second	Third	Forth	Total
		N(%)	N(%)	N(%)	N(%)	N(%)
1	Baekban	123(17.5)	25(3.6)	29(4.2)	28(4.0)	205(29.2)
2	Dongas	65(9.3)	49(7.0)	40(5.7)	28(4.0)	182(25.9)
3	Ramyun	52(7.4)	78(11.1)	55(7.8)	51(7.3)	236(33.6)
4	Bokkeumbab	30(4.3)	39(5.5)	26(3.7)	21(3.0)	116(16.5)
5	Bibimbap	30(4.3)	29(4.1)	23(3.3)	36(5.2)	118(16.9)
6	Dupbap	28(4.0)	30(4.3)	17(2.4)	-	75(10.7)
7	Gimbab	27(3.8)	47(6.7)	37(5.3)	29(4.2)	140(20.0)
8	Hamburger	24(3.4)	47(6.7)	38(5.4)	29(4.2)	138(19.7)
9	Kimchi-bokkeumbap	22(3.1)	-	-	-	22(3.1)
10	Kimchijigae	22(3.1)	14(2.0)	-	13(1.9)	49(7.0)
11	Jajangmyun	20(2.8)	36(5.1)	33(4.7)	31(4.4)	120(17.0)
12	Dukbokggi	17(2.4)	28(4.0)	31(4.4)	31(4.4)	107(15.2)
13	Sundubujigae	15(2.1)	17(2.4)	-	-	32(4.5)
14	Sullungtang	14(2.0)	-	-	-	14(2.0)
15	Doenjangjigae	12(1.7)	14(2.0)	15(2.1)	-	41(5.8)
16	Guksoo	-	20(2.8)	24(3.5)	20(2.9)	64(9.1)
17	Spaghetti	-	-	-	12(1.7)	12(1.7)
18	Udong	-	-	15(2.1)	23(3.3)	38(5.4)
19	Pizza	-	-	27(3.8)	12(1.7)	39(5.5)
20	Bread	-	17(2.4)	20(2.8)	36(5.2)	73(10.4)
Subtotal		501(71.2)	490(69.6)	430(61.3)	400(57.4)	1821(256.0)
Others		203(28.8)	214(30.4)	272(38.7)	297(42.6)	986(144.0)
Total		704(100.0)	704(100.0)	702(100.0)	697(100.0)	2807(400.0)

- beyond 15th preferable foods

음식은 백반, 돈까스, 라면, 볶음밥, 비빔밥, 덮밥, 김밥, 햄버거,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짜장면, 떡볶이, 순두부찌개, 설렁탕, 된장찌개 등이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면이나 빵 보다는 밥 종류를 점심으로 즐겨 먹고 있었으며, 이는 다른 보고들^{6,13,20,30}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패스트푸드 중에서는 햄버거가 가장 선호되었으며 다음으로 피자, 스파게티의 순이었다.

저녁으로는 백반, 햄버거, 돈까스, 피자, 스파게티, 술, 볶음밥, 짜장면, 비빔밥, 덮밥, 삼겹살, 떡볶이, 닭갈비, 라면, 김밥 등이 가장 선택빈도가 높았다. 점심으로 백반을 가장 선호한 것과는 달리 저녁으로는 백반에 이어 햄버거, 돈까스, 피자, 스파게티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4가지 음식의 선택 빈도는 186(26.6%)으로 밥류(백반, 볶음밥, 비빔밥, 덮밥)의 선택 빈도 129(18.4%)보다 훨씬 높았다.

청소년을 비롯한 대학생에서 식품기호가 서구화되고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등 편의식품의 섭취가 매우 증가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²⁹이지만, 본 연

구에서 보듯이 점심보다 비중을 두는 저녁에 패스트푸드와 양식의 선택빈도가 높다는 것은 입맛의 서구화와 편의성 추구의 성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본다.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이유로 한(1992년)³²과 김(1996년)³³의 결과에서 '맛이 있으므로'의 항목이 11~28%인데 비해 정(1998년)³⁰의 연구에서는 66~88% 였던 것으로 보아, 시간이 지날수록 패스트푸드가 지닌 맛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커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들의 식사시간이 대부분 10~20분^{6,22,18}인 점도 이들이 편의성을 갖춘 식품을 선호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정¹⁷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저녁 외식을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술과 식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점심과는 달리 술이 저녁에 즐겨 선택되는 15가지 음식에 포함되었으며, 삼겹살, 닭갈비, 부대찌개 같은 양념이 강하고 기름진 음식들도 저녁에 선호되었다.

<Table 8> Preferable foods for dinner

() : item numbers

Items		First	Second	Third	Forth	Total
		N(%)	N(%)	N(%)	N(%)	N(%)
1	Baekban	77(11.0)	32(v4.6)	35(5.0)	28(4.1)	172(24.7)
2	Hamburger	68(9.7)	51(7.3)	42(6.0)	28(4.1)	189(27.1)
3	Dongas	41(5.8)	33(4.7)	35(5.0)	24(3.5)	133(19.0)
4	Pizza	39(5.6)	45(6.4)	36(5.2)	21(3.1)	141(20.3)
5	Spaghetti	38(5.4)	23(3.3)	23(3.3)	-	84(12.0)
6	Alcohol	26(3.7)	-	-	-	26(3.7)
7	Bokkeumbap	23(3.3)	20(2.9)	19(2.7)	15(2.2)	77(11.1)
8	Jajangmyun	20(2.9)	18(2.6)	27(3.9)	22(3.2)	87(12.6)
9	Bibimbap	19(2.7)	25(3.6)	12(1.7)	13(1.9)	69(9.9)
10	Dupbap	18(2.6)	-	-	13(1.9)	31(4.5)
11	Samgyubsal-gui	18(2.6)	-	13(1.9)	-	31(4.5)
12	Dukbokkgi	17(2.4)	32(4.6)	23(3.3)	29(4.2)	101(14.5)
13	Dakgalbigui	16(2.3)	28(4.0)	-	14(2.0)	58(8.3)
14	Ramyun	52(7.4)	26(3.7)	31(4.4)	40(5.9)	149(21.4)
15	Gimbab	13(1.9)	26(3.7)	22(3.2)	17(2.5)	78(11.3)
16	Udong	13(1.9)	-	-	-	13(1.9)
17	Kimchijigae	-	13(1.9)	14(2.0)	14(2.0)	41(5.9)
18	Budaechijigae	-	13(1.9)	15(2.2)	-	28(4.0)
19	Sundubujigae	-	-	12(1.7)	-	12(1.7)
20	Guksoo	-	20(2.9)	27(3.9)	39(5.7)	86(12.5)
21	Bread	0	-	-	16(2.3)	16(2.3)
Subtotal		462(65.9)	405(57.8)	386(55.3)	333(48.8)	1,622(232.9)
Others		203(28.8)	296(42.2)	312(44.7)	350(51.2)	1,161(167.1)
Total		701(100.0)	701(100.0)	698(100.0)	683(100.0)	2,783(400.0)

- beyond 15th preferable foods

4. 식당 선택의 기준과 개선점

<Table 9>에서 보듯이 대학생들은 남·녀 모두 주로 학교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촌지역이 높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들의 27.0%가 신촌지역의 대학생(서강대, 연세대, 홍익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주된 외식 장소도 학교 근처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집근처, 대학로, 종로, 압구정동, 명동 등의 순이었다.

친구와 식당에 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Table 10>에서와 같이 남녀 모두 맛을 가장 우선시 하여 거의 대부분의 보고들^{8-14)16,17)}과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가격, 분위기, 위생, 서비스, 브랜드의 순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가격과 서비스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맛과 위생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P<.05) 선행 연구^{8,11,14,17)} 결과와

같았으므로 이는 남녀 학생 간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른 결과^{5,30)}에서와 같이 일단 맛과 가

<Table 9> Favorite place for dating or meeting with friends

Variables	All	Male	Female	χ^2
	N(%)	N(%)	N(%)	
Near the school	223(31.5)	119(16.8)	104(14.7)	14.404
Near the house	69(9.8)	37(5.2)	32(4.5)	
Around Gangnam subway station	74(10.5)	35(4.9)	39(5.5)	
Sinchon area	147(20.8)	72(10.2)	75(10.6)	
Daehangno	62(8.8)	40(5.7)	22(3.1)	
Apgujeong-dong	23(3.3)	9(1.3)	14(2.0)	
Jongno	57(8.1)	27(3.8)	30(4.2)	
Myeong-dong	13(1.8)	3(0.4)	10(1.4)	
Other place	40(5.7)	26(3.7)	14(2.0)	
Total	708(100.0)	368(52.0)	340(48.0)	

<Table 10> First determinant in selecting restaurant while meeting with friends or dating

Variables	Meeting with friends			χ^2	Dating			χ^2
	All N(%)	Male N(%)	Female N(%)		All N(%)	Male N(%)	Female N(%)	
Price	181(25.5)	118(16.6)	63(8.9)	18.835**	54(7.6)	34(4.8)	20(2.8)	15.547**
Taste	388(54.7)	180(25.4)	208(29.3)		228(32.1)	95(13.4)	133(18.7)	
Atmosphere	92(13.0)	47(6.6)	45(6.3)		374(52.7)	209(29.4)	165(23.2)	
Brand	4(0.6)	2(0.3)	2(0.3)		6(0.9)	4(0.6)	2(0.3)	
Hygiene	30(4.2)	13(1.8)	17(2.4)		38(5.4)	21(3.0)	17(2.4)	
Service	15(2.1)	9(1.3)	6(0.9)		10(1.4)	6(0.9)	4(0.6)	
Total	710(100.0)	369(52.0)	341(48.0)		710(100.0)	369(52.0)	341(48.0)	

**P<0.01

격이 갖추어지면 분위기가 식당 선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상품과는 달리 식당 선택에 있어서 브랜드는 거의 중요시 되지 않았다.

반면 이성 친구와 식당에 갈 때는 남녀 모두 분위기를 가장 중시하였으며 맛, 가격, 위생, 서비스, 브랜드의 순이었다. 테이트 시에도 역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가격을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맛을 중시하였다.

자주 가는 식당의 가장 큰 개선점으로는 <Table 11>에서와 같이 남녀 모두 산만한 분위기를 지적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객단가가 저렴한 영세한 규모의 식당이거나, 학생식당, 패스트푸드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가격, 서비스, 위생, 맛의 순으로 지적하였으며, 여학생은 위생, 가격, 서비스, 맛의 순서로 답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남학생은 가격과 서비스를 중요시 하는 만큼 불만족하는 부분도 가격과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위생을 중요시 하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위생에 대해 더욱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맛을 가장 중요한 개선점으로 지적한 허⁵⁾의 보고와는 크게 다른 결과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가격과 위생¹¹⁾, 혹은 가격과

서비스¹⁵⁾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커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5. 음식 선택 시 중요시 하는 감각

음식을 선택할 때 중요시 하는 감각을 알아보기 위해 시각(모양새), 후각(냄새), 미각(맛), 촉각(입안에서의 감촉)의 4가지 감각 중에서 중요시 하는 순서대로 4점, 3점, 2점, 1점의 점수를 주어 평균점을 구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남·녀 모두 맛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다음으로 모양새, 냄새, 감촉의 순이었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냄새를 더 중시하였으며, 남녀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6. 식당정보의 활용과 외식에 대한 적극성

<Table 13>에서 보듯이 식당에 관한 정보는 절대 다수(78.2%)의 학생들이 친구나 친척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나 친지의 추천이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식당선택에 큰 영향을 주고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잡지(8.2%)와 인터넷(8.0%)의 순이었는데, 대학생들은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식당정보를 얻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다

<Table 11> Most unsatisfying feature in restaurant

Variables	All N(%)	Male N(%)	Female N(%)	χ^2
Expensive price	167(23.5)	95(13.3)	72(10.1)	18.275**
Inferior taste	83(11.7)	45(6.3)	38(5.4)	
Unstable atmosphere	186(26.2)	97(13.7)	89(12.5)	
Insufficient hygiene	139(19.6)	51(7.2)	88(12.4)	
Inferior service	135(19.0)	81(11.4)	54(7.6)	
Total	710(100.0)	369(52.0)	341(48.0)	

**P<0.01

<Table 12> Importance of sensory factors in food selection^{a)}

Variable	All	Male	Female	χ^2
Appearance	2.85	2.83	2.86	2.391
Smell	2.56	2.63	2.48	16.690**
Taste	3.48	3.42	3.54	7.714
Texture	1.17	1.19	1.15	4.897

a)score range = from 1 to 4

**P<0.01

른 국내의 연구들^{5,15,34})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여, 고객의 긍정적인 평가와 추천이 다른 고객을 불러들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3〉에서 보듯이 식당정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생들의 식당정보 활용 정도는 그다지 높지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 전체로 볼 때 반수정도(52.1%)가 가끔씩 활용하며, 보통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22.1%,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17.6%나 되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식당에 관한 정보를 친구나 친척을 통해 얻으며, 학생들의 외식비가 대략 5,000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고, 외식을 하는 장소도 학교 근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만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서적이나 잡지에서 다루는 식당정보가 고급한 취향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본다. 이제 외식은 일상의 한 부분이 된만큼 출판업계도 대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창출에 관심을 가져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식당의 질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외식문화 수준은 호텔이나 고급 식당이 아닌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Table 13> Major source & using frequency of restaurant information

Variables	All	Male	Female	χ^2
	N(%)	N(%)	N(%)	
Restaurant information source				6.984
Friends or relatives	554 (78.1)	289(40.8)	265(37.4)	
Internet	57 (8.0)	34(4.8)	23(3.2)	
Restaurant guide book	22 (3.1)	13(1.8)	9(1.3)	
Magazine	58 (8.2)	22(3.1)	36(5.1)	
Newspaper	18 (2.5)	11(1.6)	7(1.0)	
Total	709(100.0)	369(52.1)	340(47.9)	
Using restaurant guide				21.515***
Often	58 (8.2)	28(3.9)	30(4.2)	
Sometimes	156 (22.0)	70(9.9)	86(12.1)	
Rarely	371 (52.3)	183(25.8)	188(26.5)	
Never	125 (17.6)	88(12.4)	37(5.2)	
Total	710(100.0)	369(52.0)	341(48.0)	

*** $P < 0.001$

〈Table 14〉에서 보듯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미식(美食)을 위한 외식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 외식하는 경우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미식(美食)을 위한 외식을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식에 대한 남녀의 가치관이 달라 남학생은 배고픔의 해결을 우선시 하는 반면, 여학생은 식사를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고 한 김의 연구¹⁹)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반수 정도(52.1%)의 학생이 가끔이라고 답하였으며, 자주는 8.2%, 보통이라는 응답은 16.5% 였다. 반면 전혀 없다는 응답은 22.2% 였다. 따라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식도락형 외식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맛있고 저렴한 식당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가보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적극적이었는데, 〈Table 14〉에서 보듯이 '1시간 이내라면 가보겠다' 와 '시간에 관계없이 가보겠다' 는 응답이 남학생보다 많은 반면, 전혀 가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훨씬 적었다($P < .001$). 전체적으로 볼 때 30분 이내라면 가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41.1%), 1시간 이내라면 가겠다는 응답은 28.7%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걸어서 혹은 전철이나 버스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식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간에 관계없이 가보겠다는 응답도 16.5%로 나타나 식도락형 외식에 상당히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4> Eating out for gourmet

Variables	All	Male	Female	χ^2
	N(%)	N(%)	N(%)	
Eating out for gourmet				49.706***
Often	63 (8.9)	22(3.1)	41(5.8)	
Sometimes	116 (16.3)	47(6.6)	69(9.7)	
Rarely	373 (52.5)	181(25.5)	192(27.0)	
Never	158 (22.3)	119(16.8)	39(5.5)	
Total	710(100.0)	369(52.0)	341(48.0)	
Preferable time to get to gourmet restaurant				26.953***
Within 30 min.	293(41.3)	159(22.4)	134(18.9)	
Within 1 hour	203(28.6)	83(11.7)	120(16.9)	
Time doesn't matter	117(16.5)	57(8.0)	60(8.5)	
Have no interest	97(13.7)	70(9.9)	27(3.8)	
Total	710(100.0)	369(52.0)	341(48.0)	

*** $P < 0.001$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외식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11개교 대학생 710명을 대상으로 외식비와 외식빈도, 외식시 선호하는 음식, 식당 선택의 기준과 개선점, 음식 선택시 중요시 하는 감각, 식당정보의 활용과 외식에 대한 적극성 등을 설문지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월평균 외식비는 6~10만원이 가장 많았고(39.4%), 57.8%의 학생들이 매일 한끼 이상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끼 점심 식사비는 2,000~3,500원이 가장 많았으며(57.5%), 29.7%는 2,000원 미만이었다. 저녁 식사비는 4,000~5,000원대가 가장 많았으며(36.5%), 대다수(83.4%)의 학생들이 저녁의 비중을 훨씬 크게 두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친구와 외식시 선호하는 음식은 남녀 모두 한식(53.4%)에 이어 패스트푸드(22.1%)로 나타났으며, 분식, 중식, 일식의 선호도는 낮았다. 특히 패스트푸드의 선호도가 분식의 8배 가량으로 나타나 이전 결과나 타지역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따라서 서울시내 대학생들의 음식 선호도가 타지역에 비해 분식에서 패스트푸드로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이트 시에는 친구와의 외식시에 비해 양식의 선호도(30.2%)가 크게 높았으며, 한식(28.3%)과 패스트푸드(27.4%)는 여전히 선호되었고 분식, 중식, 일식의 선호도는 매우 낮았다.
- 3) 외식시 선호하는 음식으로 총 80가지가 조사되었는데, 이중 한식이 50가지로 주종을 이루고는 있으나 상당부분은 한국화된 외래음식이 차지하고 있고, 양식의 종류가 일식이나 중식보다 많아 앞으로 청장년층에서 서양음식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점심으로는 면이나 빵 보다는 밥 종류를 즐겨 먹고 있었으나, 저녁에는 밥종류 보다는 햄버거, 돈가스, 피자, 스킨캐피의 선택빈도가 훨씬 높아 입맛의 서구화와 편의성 추구의 성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 식당 선택시에는 남녀 모두 맛, 가격, 분위기, 위생, 서비스, 브랜드의 순으로 우선시 하였으나,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가격과 서비스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맛과 위생을 더 고려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반면 데이트 시에는 남·녀 모두 분위기를 가장 중시하였으며 다음으로 맛, 가격, 위생, 서비스, 브랜드의 순이었다. 대학생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데이트하는 장소는 주로 학교 근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 5) 자주 가는 식당의 가장 큰 개선점으로 남녀 모두

산만한 분위기를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남학생은 가격, 서비스, 위생, 맛의 순으로 여학생은 위생, 가격, 서비스, 맛의 순서으로 지적하여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 6) 음식 선택시 남녀 모두 맛, 모양새, 냄새, 감촉의 순으로 중요시 하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냄새를 더 중시하였다.
- 7) 식당에 관한 정보는 대다수(78.2%)의 학생들이 친구나 친척을 통해 얻고 있었으며, 잡지와 인터넷의 활용은 미미하였다. 식당정보 활용은 그다지 많지 않아 52.1%가 가끔씩 활용하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주 활용하고, 미식(美食)을 위한 외식빈도도 유의적으로 높아 식도락형 외식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은 대학생들의 외식행동 경향은 전통음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외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의 평균 외식비와 음식기호를 감안할 때, 3,500원 이하의 밥을 위주한 점심 메뉴와, 점심메뉴와는 차별화된 5,000원 이하의 저녁메뉴와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편의식품의 잦은 섭취로 인한 영양문제만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의 식품기호를 바꾸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며, 그보다는 새로운 맛과 경제성, 편의성과 영양균형을 겸비한 메뉴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대학생들 겨냥한 메뉴는 일반인에게도 부담없는 메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며, 따라서 5,000원 이하의 맛, 경제성, 편의성을 갖춘 메뉴는 상당한 시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 참고문헌

- 1) Mo SM. The influence of development of food service industry on nutrition and dietary life of Korea. Korean J Nutr. 19(2): 120-128, 1986
- 2) Na JK, Understanding food service industry, pp 124-184, 202-209, Baeksan Pub. Com., 1998
- 3) Korea Restaurant Association, Korea foodservice industry yearbook, p.59, 1999
- 4)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p.15, 2000
- 5) Hur KE, A research study on the reality of college student's eating-out in the Seoul area, Sejong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2000
- 6) Lee HB, A study on lunch meal practice of the college students, Dongguk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1995

- 7) Driskell JA, Keith RE, Tangeny CC. Nutritional status of white college students in Virginia. *J. Am. Diet. Assoc.* 74: 32, 1979
- 8) Roh JM, Yoo YS. A study on the survey of eating out and food preference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I).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7(2) : 65-74, 1989
- 9) Roh JM, Yoo YS. A study on the survey of eating out and food preference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II).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7(4) : 51-58, 1989
- 10) Ahn SJ. A study on the survey of the dining out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4(4) : 383-393, 1989
- 11) Yi IY, Yi JM, Kwak SS. A study on the state of eating out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J. Home Economics, Myong Ji University* 7 : 37-50, 1991
- 12) Lee JS. The study of eating out behaviors on junior college students in Chung Chong Area(I). *J. Taejon Medical Junior College* 18 : 429-438, 1997
- 13) Lee JS. The study of eating out behaviors on junior college students in Chung Chong Area(II). *J. Taejon Medical Junior College* 19 : 417-442, 1997
- 14) Song BC. Dietary pattern of the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Seoul focusing on the eating-out and food preference. *J. Natural Sci. Konkuk University* 9(2) : 269-80, 1998
- 15) Kwon SH, Cho KR, Yi BS. A study on the state of eating out of college student in Yeojoo of Kyeong-Ki Do. *J. Food & Nutrition, Hanyang Women's College* 13 : 59-73, 1999
- 16) Jung KH. A study on the dining-out pattern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Pusan. *Industry-College Research Review, Sungsim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19(2) : 169-188, 1999
- 17) Jung EJ. A study on dining-out consump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Cheju Do, Cheju National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2000
- 18) Kim SY, Kim CE, Oh HJ, Seo JH, Chung YJ. Study on the food habits, residence type and obesity index of college students in Taejeon. *Human Ec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2 : 49-76, 1999
- 19) Kim HS. A study on foo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Jeon Buk Area, Wonkwang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1996
- 20) Lyu ES. A study on dietary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Pusan. *Korean J Dietary Culture* 8(1) : 43-54, 1993
- 21) Park YS. A survey on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behaviors of male college students. *Soonchunhyang J. Nat. Sci.* 3(1) : 385-392, 1997
- 22) Shin SH. A study on the stress levels and dietary pattern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1999
- 23) Chang SY. A study in food habits of college women. *Hyos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1987
- 24) Chung YJ. Food preference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Nutr.* 17(1) : 10-19, 1984
- 25) Jung EY. The relationship between favorite foods intake and dietary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Korea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2000
- 26) An SH. A study on fast food consumption in college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1990
- 27) Kim MJ. A study on dietary behavior of the hamburger store customer,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1993
- 28) Kim BH, Lee KS, Mo SM. A survey of fast food dining out behaviors.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8(2) : 15-29, 1990
- 29) Kim Hy, Kim SH Choi, Ju SE. A survey of the behaviors on fast food restaurant. *Korean J. Dietary Culture* 11(1) : 71-82, 1996
- 30) Jung SH. A survey of opinions in college students on fast food restaurant and school cafeteria in Taegu. *J. Kum-Gu, Kyoung Buk Science College* 6 : 41-47, 1998
- 31)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 for Koreans. 7th Revision, p.2, 2000
- 32) Han MJ. A survey of college students opinions on school cafeteria in Seoul area. *Korean J. Dietary Culture* 7(2) : 113-118, 1992
- 33) Kim HK.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in Ulsan. *Korean J. Dietary Culture* 11(1) : 131-41, 1996
- 34) Anthony J. Strianese. *Dinning room and banquet management.* Delmar Publishers Inc, p. 5